

2000년
계육생산성·위생관리
향상대책사업

식조생산방식의
개선계획

지방 계육생산성·위생관리향상 추진협의회
(사단법인) 일본식조협회

1. 계육생산성·위생관리 향상대책사업의
취지와 실시방침

(1) 취지

닭고기 국내생산은 소비둔화와 가격하락이
이어지면서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소
비자들 사이에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닭고
기에 대한 구매욕구가 강해지고 있어 이들제품
의 안정적인 공급이 요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닭고기 시장의 환경은 수입닭고기와의 경쟁
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생산자들은
가일층 생산비 절감과 안전·고품질 닭고기생
산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경쟁대열에서 탈락될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닭고기 생산성·위생관리향상대책사
업은 지역마다 생산성과 위생관리 향상을 물론
폐기율을 크게 낮추기 위한 생산방식의 개선을
계획하여 체계화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폐기율을 낮춰 생산성 향상에 노력합시다.

(2) 실시방침

이러한 취지에 따라 다음 상황을 검토하고 생산방식의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2. 식조생산방식의 개선계획

(1) 생산·출하

【사양관리 대장의 작성과 기입】

농장장(또는 사양관리자)은 농장의 계사동마다 입추수수, 감모수수, 폐사원인, 도태의 내역과 급이량, 주령체중, 계사온도, 백신접종 여부, 약품의 투여상황 등에 관한 관리대장을 자세하게 작성하여 기입해야 한다.

【닭의 입·출하형태】

계군의 입출하는 농장마다 올인·올아웃을 기본으로 하고, 가능농장들을 서로 통합하여 일정지역을 한 단위로 묶어 올인·올아웃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실행한다.

【출하】

- 도계처리 예정시간 10~12시간 전에 급이를 증지하여 육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한다.

(주) 후생노동성의 '도계장에서의 HACCP방식에 의한 위생관리지침'에서는 기준항목에 반입전 사료급이 중지는 12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 식조검사를 통해 불합격과 상태가 불량한 식조(발육 부진·이상닭 등)로 판명된 식조류는 절대 출하지 않도록 한다.

(2) 사양관리

【병아리】

내병성과 생산성이 높은 종계를 선정하여 품질과 균일성에 초점을 맞춘다.

【온도관리와 환기】

일령, 계절, 기후, 계사의 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온도관리에 힘써야 한다.

【급이】

급이간격, 잔여량 등에 유의하여, 적절한 급이량을 조절한다. 급수간격, 보충량, 급수기 소독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정확한 급수관리에 노력한다.

【사육관리 수수밀도의 적정화】

사양밀도는 목표체중, 출하일령, 계절과 기후, 계사의 능력 닭의 복지 등이 최대한 배려되도록 적정수수밀도를 유지한다.

【자가발전기의 설치】

낙뢰 등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정전사고에 대비하여 자가발전기를 설치해 한다.

【방한대책】

- 동절기 동결과 설해사고, 누전사고 등에 대책을 세운다.

- 동절기에 빈발하는 복수증, 태양균증, 호흡기질병, 마렉병 등의 예방대책으로써 보온대책, 환기방법, 물세척 소독에 만전을 기한다.

【방서대책】

해외 소식-일본

혹서기의 열사를 예방하기 위해 태양열이 계사 안으로 직접 침투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화냉각, 송풍 등의 방서대책을 사전에 강구한다.

(3) 위생관리

【청소】

수시로 계사주변과 계사내의 청소에 만전을 기한다.

【물세척, 소독】

- 계사의 세척은 세제를 풀어 솔 등을 이용하여 오물과 먼지를 완전하게 제거하도록 고압세정기를 이용한다.

- 물로 세척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하게 씻어내야 한다.

- 소독은 사용장소, 소독방법 등 대상목적에 적합한 소독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계사가 비어있을 경우에는 충분한 소독이 필요하다.

- 물세척, 소독의 결과에 대해 실시일과 소독약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해둬야 한다.

(4) 사육환경

【질병예방대책】

○ 출입금지

농장내에는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출입구를 제한함은 물론 팬을 필수적으로 설치하게 한다.

○ 기자재 등의 소독

농장에서만 사용하는 의복, 장화 등을 마련도록 한다. 또 차량, 기자재 등의 농장내 출입을 제한하고, 출입 때는 철저하게 소독케 한다.

○ 유해조수의 계사내 침입의 사전차단

야생조류, 쥐 등이 계사내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다

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계사내의 관리

- 감염닭, 폐사축은 속히 계사 밖으로 반출하는 등 신속 정확한 격리조치를 취한다.

- 급수기는 항상 청결을 유지케 한다.

- 바닥상태가 양호한지 수시로 점검한다.

- 환기, 사육밀도, 온도, 습도 등의 계사내 환경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변화에 신속 대처해야 한다.

- 계사내 정리정돈에 주의한다.

- 동절기 계사가 비어있을 경우에는 급이기, 급수기 등의 동결방지에 주의한다.

○ 계사주변의 환경설비

- 계사 안과 밖의 배수로를 완비하여, 계사주변의 오염방지와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면서 파리, 모기 등의 유해충 발생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청정화에 노력한다.

- 쥐나 파리, 모기의 구제에 힘쓴다.

- 계사 주변의 환경정비에 노력하고, 공해를 미연에 방지한다.

○ 계분처리

- 계분은 출하후 되도록 신속하게 계사 밖으로 반출하는 등 청결조치에 노력한다.

- 계분처리에 있어서 21일령 미만의 어린 닭에 마렉병을 일으키는 전염병에 주의한다.

- 특히 질병방지에 유념토록 한다.

○ 백신접종 약품

- 백신접종은 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에 의해 적절히 행한다.

- 약품투여는 기준을 엄격하게 지킨다.

【스트레스 방지대책】

계사내의 암모니아 농도가 높아지고, 환기가 불량하면 질병이 발생되기 쉬우므로 스트레스 방지에 노력한다. C